

계 열 문 항 1

<가>

18세기 천문학자들에게 공통의 과제 한 가지는 천체의 회전속도 측정이었다. 이 과제는 행성, 혜성이나 별 같은 천체가 망원경 렌즈 상의 두 평행선 사이를 지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가 토성의 속도를 계산해 앞으로의 경로를 예측하고 싶은 경우에는 토성이 첫 번째 평행선에 닿는 순간 회중시계를 작동시켰다가 토성이 두 번째 평행선에 닿을 때 시계를 중단시키는 식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런 측정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열 명의 천문학자가 각자 같은 천체의 속도를 측정해보면 열 명의 측정값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여러 관찰에서 서로 다른 측정값이 나올 때 그중 어떤 측정값을 사용할지 판가름해낼 해결책이 필요했다. 마침내 천문학자들은 초창기에 ‘평균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독창적 해결책을 채택했다. 그들은 개별 측정값을 취합해 하나의 ‘평균 측정값’을 산출해냈다. 이 방법을 놓고 그 옹호자들은 평균 측정값이 그 어떤 단독 측정값보다 더 정확히 산출된 참값이라고 평했다.

그런데 평균값을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될 때도 있다. 어떤 이가 토끼고기 햄버거를 파는 노점상에게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고 묻자, 노점상이 이렇게 대답했다. “말고기를 조금 섞지요. 많이 섞진 않습니다. 정확히 일대일의 비율이지요.” 우리는 일대일이라는 비율이 당연히 고기 무게의 비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노점상의 말에 담긴 진실은 이렇다. 토끼 한 마리에 말 한 마리를 섞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노점상처럼 수치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문제점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나>

1983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의 교육 현실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서 “평범한 학생들을 양산하는 평준 교육 풍조”가 “미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신호는 학생들의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대학진학능력기초시험)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는 사실이었다. 1963년부터 1980년 사이에 어휘력 점수는 50점, 수학 점수는 40점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미국인의 기술력에 달려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미국인의 기술력이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 보고서를 보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했다. 바로 교사들이었다. 보고서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 행동이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결과를 토대로 무능한 불량 교사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문제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7년이 흐른 후, 샌디아 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이 보고서의 근거로 사용된 데이터를 재검토했다. 연구자들은 이내 **해석상의 오류**를 찾아냈다. 1963년부터 1980년까지 17년간 SAT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자들은 같은 기간 SAT 응시자 수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학들은 경제적 빈곤층과 소수 인종 학생들을 과거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렸다는 신호였다. 그에 따라 같은 기간 SAT 응시자 수는 크게 늘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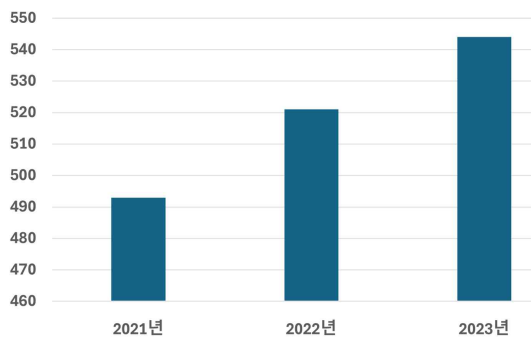
통상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소득증가와 행복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그렇다.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등의 기본 수요를 만족하고 나면, 다시 말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없을 때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설령 그가 먹고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도 그렇다.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인의 소득이 그 사회의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원

가 억울하게 빼앗긴 듯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부른다. 선진국에서는 가구소득이 그 나라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으로 본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소득의 3분의 1 이하를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상대적 빈곤은 소비주의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심각한 현상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적다는 상대적 빈곤감은 자신감을 상실케 하고 심한 경우 좌절감을 넘어 우울증에 이르게 한다. 빈부 격차에 계층 간의 소득 차이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이 증폭되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지나고 나면 정부가 빈부 격차 문제와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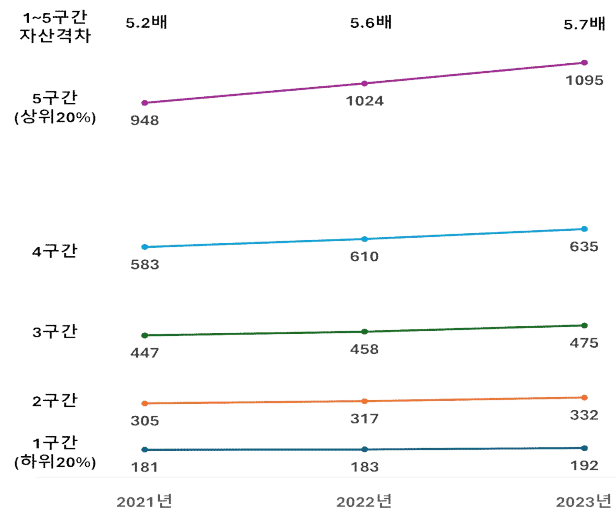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만원)



<그림 2> 최근 3년간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만원)



*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 가구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을 순서대로 20%씩 5개로 나눈 구간(1구간은 가구소득 하위 20%, 5구간은 가구소득 상위 20%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짐)

1-1. <가>를 활용하여 <나>의 밑줄 친 오류를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누군가 <그림 1>을 가리켜 가구소득이 올라갔으니 사람들의 행복감도 더 커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하자. 이때 그 해석의 문제점을 <가>와 <다> 그리고 <그림 2>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600±60)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5학년도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평균값, 소득, 경제적 불평등, 통계 자료 해석
예상 소요 시간	50 분 / 전체 100 분	

2. 문항 및 자료

<가>

18세기 천문학자들에게 공통의 과제 한 가지는 천체의 회전속도 측정이었다. 이 과제는 행성, 혜성이나 별 같은 천체가 망원경 렌즈 상의 두 평행선 사이를 지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가 토성의 속도를 계산해 앞으로의 경로를 예측하고 싶은 경우에는 토성이 첫 번째 평행선에 닿는 순간 회중시계를 작동시켰다가 토성이 두 번째 평행선에 닿을 때 시계를 중단시키는 식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런 측정 방식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열 명의 천문학자가 각자 같은 천체의 속도를 측정해보면 열 명의 측정값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여러 관찰에서 서로 다른 측정값이 나올 때 그중 어떤 측정값을 사용할지 판가름해낼 해결책이 필요했다. 마침내 천문학자들은 초창기에 ‘평균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독창적 해결책을 채택했다. 그들은 개별 측정값을 취합해 하나의 ‘평균 측정값’을 산출해냈다. 이 방법을 놓고 그 옹호자들은 평균 측정값이 그 어떤 단독 측정값보다 더 정확히 산출된 참값이라고 평했다.

그런데 평균값을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될 때도 있다. 어떤 이가 토끼고기 햄버거를 파는 노점상에게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고 묻자, 노점상이 이렇게 대답했다. “말고기를 조금 섞지요. 많이 섞진 않습니다. 정확히 일대일의 비율이지요.” 우리는 일대일이라는 비율이 당연히 고기 무게의 비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노점상의 말에 담긴 진실은 이렇다. 토끼 한 마리에 말 한 마리를 섞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노점상처럼 수치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문제점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나>

1983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의 교육 현실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해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서 “평범한 학생들을 양산하는 평준 교육 풍조”가 “미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신호는 학생들의 SAT(Scholastic Assessment Test 대학진학능력기초시험)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는 사실이었다. 1963년부터 1980년 사이에 어휘력 점수는 50점, 수학 점수는 40점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미국인의 기술력에 달려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미국인의 기술력이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 보고서를 보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했다. 바로 교사들이었다. 보고서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 행동이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결과를 토대로 무능한 불량 교사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문제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7년이 흐른 후, 샌디아 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이 보고서의 근거로 사용된 데이터를 재검토했다. 연구자들은 이내 **해석상의 오류**를 찾아냈다. 1963년부터 1980년까지 17년간 SAT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자들은 같은 기간 SAT 응시자 수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학들은 경제적 빈곤층과 소수 인종 학생들을 과거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렸다는 신호였다. 그에 따라 같은 기간 SAT 응시자 수는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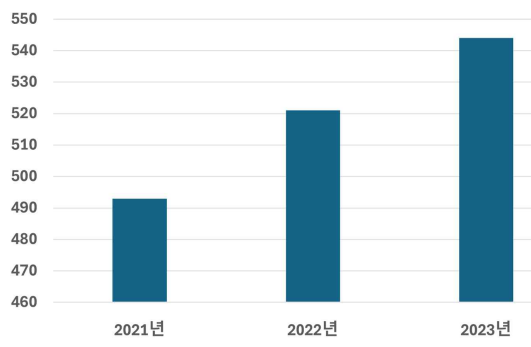
<다>

통상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소득증가와 행복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그렇다.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등의 기본 수요를 만족하고 나면, 다시 말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없을 때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설령 그가 먹고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도 그렇다.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인의 소득이 그 사회의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뭔가 억울하게 빼앗긴 듯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부른다. 선진국에서는 가구소득이 그 나라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으로 본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소득의 3분의 1 이하를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상대적 빈곤은 소비주의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심각한 현상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적다는 상대적 빈곤감은 자신감을 상실케 하고 심한 경우 좌절감을 넘어 우울증에 이르게 한다. 빈부 격차에 계층 간의 소득 차이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이 증폭되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지나고 나면 정부가 빈부 격차 문제와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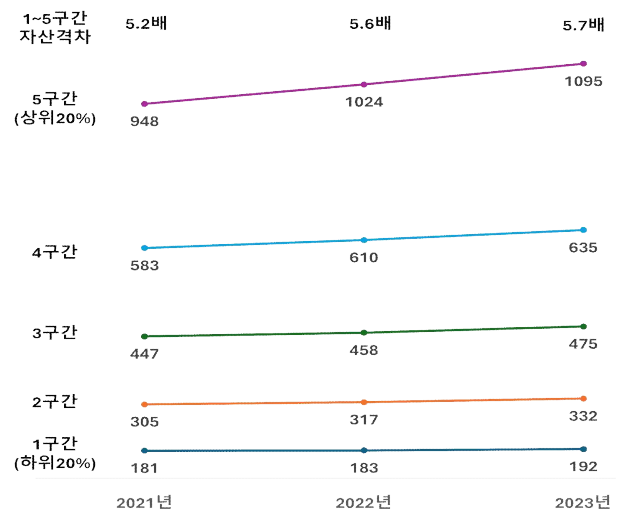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만원)



<그림 2> 최근 3년간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단위: 만원)



*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소득(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정부/가족 지원 등의 수입을 모두 포함한 소득

** 가구소득 구간: 가구 총소득을 순서대로 20%씩 5개로 나눈 구간(1구간은 가구소득 하위 20%, 5구간은 가구소득 상위 20%로 구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짐)

1-1. <가>를 활용하여 <나>의 밑줄 친 오류를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누군가 <그림 1>을 가리켜 가구소득이 올라갔으니 사람들의 행복감도 더 커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하자. 이때 그 해석의 문제점을 <가>와 <다> 그리고 <그림 2>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600±60)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통계 자료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 제시문 <가>는 특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평균값의 의미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다루고 있고, <나>는 실제로 미국 교육위원회가 평균값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다>는 평균소득의 의미를 해석할 때 상대적 빈곤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평균 가구소득 증가와 구간별 가구소득 현황을 통해 평균소득과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제시된 논제는 평균값의 해석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제시문 <가>)를 실제 사례(제시문 <나>)에 적용하여 사회 현상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료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 아울러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난 통계 자료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고 역량을 측정코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 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나>
	성취기준 2	[12사문 01-0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제시문 <나>, <다>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 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21세기북스	2021	50~51쪽	제시문 <가>	○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	정남구	시대의창	2013	81~83쪽	제시문 <가>	○
대량살상 수학무기	케시 오닐	흐름출판	2017	226~230쪽	제시문 <나>	○
이슈우화로 읽는 경제 이야기	서병수	이케이북스	2012	148쪽	제시문 <다>	○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신한은행	신한은행	2024	12~13쪽	<그림 1, 2>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토드 로즈, 『평균의 종말』 (정미나 역)(21세기북스, 2021), 50~51쪽 (발췌 및 재구성). 정남구,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 (시대의 창, 2013), 81~83쪽 (발췌 및 재구성).

- <가>는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단순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평균값은 본래 천문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할 때 사용되었다. 이후 평균값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지표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평균값의 해석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 현상은 복잡한 맥락 속에 있으므로 수치로만 해석할 경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 캐시 오닐, 『대량살상 수학무기』 (김정혜 역)(흐름출판, 2017), 226~230쪽 (발췌 및 재구성).

- <나>는 1983년 미국의 교육위원회가 SAT(대학진학능력기초시험)의 평균 점수가 하락한 현상을 해석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잘못 특정한 것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위원회는 SAT 평균 점수 하락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원인이 교사의 무능력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대학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아 그동안 SAT에 응시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대거 시험에 응시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제 현상의 원인을 교사의 무능력에도 돌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 있다.

제시문 <다>: 서병수, 『이슈우화로 읽는 경제 이야기』 (이케이북스, 2012), 148쪽 (발췌 및 재구성).

- <다>는 가구소득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내용이다. 통상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감도 증가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불평등이 심화하여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감이 커지지 않는다. 상대적 빈곤감은 오히려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의 증가를 해석할 때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그림 1>과 <그림 2>로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림 2>는 같은 기간 소득구간별 가구소득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1>과 <그림 2>를 함께 비교 해석하면,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하위 60%에 해당하는 가구가 평균소득이 미치지 못하고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 소득 사이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사람이 많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월평균 가구소득의 증가로 사람들의 행복감이 커졌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어서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논제의 구성

1-1. <가>를 활용하여 <나>의 밑줄 친 오류를 설명하시오. (300±30자)

- 이 논제는 <가>에서 나온 평균값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나>의 미국 교육위원회가 SAT 평균 점수 하락의 원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교육위원회의 오류는 SAT 평균 점수 하락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잘못 특정한 데 있다. <가>의 요지가 평균값의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나> 교육위원회의 판단이 <가>가 말하는 부주의한 해석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1-2. 누군가 <그림 1>을 가리켜 가구소득이 올라갔으니 사람들의 행복감도 더 커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하자. 이때 그 해석의 문제점을 <가>와 <다> 그리고 <그림 2>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600±60)

- 이 논제는 가구소득의 증가를 보고 행복감이 커졌을 것이라는 해석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가>에서 말한 평균값의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다>에서 말한 상대적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그림 1>과 <그림 2>에서 읽어낸 뒤, 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라 행복감이 커졌을 것이라는 해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이 중요한 사회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도 상대적 빈곤이 커지면 사람들의 행복감은 도리어 떨어질 수 있다. 비록 <그림 1>은 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림 2>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읽어낸 뒤, <다>의 내용에 따라 가구소득의 증가를 보고 사람들의 행복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일이 부적절함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p> <p>① <가>의 내용에 따라 단순 평균값에 의지한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함.</p> <p>② <나>의 SAT 평균 점수 하락의 원인을 교사의 무능력에 둔 미국 교육위원회의 해석이 단순 평균값에 의지한 잘못된 해석일 수 있음을 적시해야 함.</p> <p>③ <나>의 미국 교육위원회의 해석이 오류일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야 함. 당시 미국의 대학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많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제까지 평균 점수 계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SAT에 많이 응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 연결과 문장의 완성도가 출중할 때	1등급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 연결이 분명하나 문장의 완성도가 부족할 때	2등급
	①, ②, ③이 반영되어 있으나 논리적 연결과 문장의 완성도가 부족할 때	3등급
	①, ②를 충족했으나 ③의 내용이 불충분할 때	4등급
	①, ③만을 충족하고, ②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할 때	5등급
	①, ②만을 충족하고, ③의 내용이 없을 때	6등급
	①, ② 또는 ③ 가운데 하나만 충족했을 때	7등급
	①, ②, ③이 모두 부족할 때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문장의 완성도가 심각하게 부족할 때	9등급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① <가>의 내용에 따라 단순 평균값에 의지한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함.</p> <p>② 평균 가구소득 증가를 보고 사람들의 행복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해석이 단순 평균값에 의지한 판단이라는 점을 적시해야 함.</p> <p>③ <다>의 내용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이 사람들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p> <p>④ <그림 1>에서 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림 2>에서 60%의 가구가 평균 소득보다 적다는 사실을 통해 상대적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해야 함.</p>	

	<p>⑤ <그림 1>을 통해 평균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림 2>를 통해 최상위 구간과 최하위 구간 사이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해야 함.</p> <p><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p>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 연결과 문장의 완성도가 출중할 때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지만, 논리적 연결이나 문장의 완성도가 부족할 때	2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지만 ④와 ⑤중 하나가 부족할 때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지만, ④, ⑤ 모두가 부족할 때	4등급
	④, ⑤의 내용은 있으나 완성도가 높지 않고 ①, ②, ③ 중 일부가 부족할 때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항목이 부족할 때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네 항목 이상이 부족할 때	7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일부 내용이 있으나 논리적 완성도가 부족할 때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문장의 완성도가 심각하게 부족할 때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1-1.

<가>는 우리가 단순 평균값에 의지해 판단할 때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미국 교육위원회의 판단이 바로 그 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SAT 평균 점수가 하락한 까닭이 교사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은 이제까지 SAT 점수 평균값의 계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SAT에 많이 응시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문제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교육위원회의 해석은 평균값에 의지한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해석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300자)

1-2.

<그림 1>은 가구 총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이 늘면 행복감도 커진다는 통념에 비추어 사람들의 행복감도 커졌으리라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 평균값에 의지한 판단은 때때로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림 2>는 하위 60%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조사 국가가 선진국이라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60%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상위 20% 구간 가구 소득과 하위 20% 구간 가구 소득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는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해서 사람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커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기보다는 도리어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사회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림 1>을 보고 사람들의 행복감이 커졌으리라 해석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해 사람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00자)